

#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에 드러난 ‘연민’ 연구

- 마사 누스바움의 ‘연민’ 이론을 중심으로 -

박준형\*

|| 차례 ||

- I. 서론
- II. 조백현을 통해 본 연민
- III. 이상옥을 통해 본 연민과 혐오의 관계
- IV. 황희백 노인을 통해 본 ‘자기’ 연민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마사 누스바움의 ‘연민’이론을 통해 소설 이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그 텍스트로 삼아 ‘연민’의 다양한 층위를 분석하고 적용해 보았다.

누스바움은 감정 이론을 통해 감정을 인지주의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이는 그간의 철학자들이 감정을 통한 판단은 많은 오류 가능성을 담보한다고 주장한 부분과 대치되는 부분이지만 ‘연민’에 대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판단이며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연민으로부터 사회적 공감대와 사회적 제도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감정은 대상을 가지며, 감정의 대상은 감정 주체의 지향적 대상이고, 감정은 대상에 관한 믿음을 체현하며, 감정의 자각은 대상을 가치부여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삼는다.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은 군부 독재 하의 현실을 알레고리 기법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며, 또 한편으로는 르포르 기획되어 제작된 소록도의 현실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소설이다. 육군 장교이자 소록도의 원장인 조백현과 의무과장인 이상옥, 나병 환자들의

---

\*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우두머리인 황희백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본 소설에서 첫째, 조백현이 보여주는 소록도 주민들에 대한 연민과 그 인지적 구조에 대한 분석, 둘째, “이상옥”을 통해 자기 연민과 자기혐오가 원생들을 대하는 인물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셋째, 황희백 노인을 통해 보여주는 자기 연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마사 누스바움의 감정 이론을 이해하고, 이러한 것들이 문학 수용의 과정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을 엿보는 것에 의의를 둔다.

주제어: 당신들의 천국, 이청준, 마사 누스바움, 감정 이론, 연민, 소설 수용, 문학감상

## I. 서론

본고는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sup>1)</sup>을 마사 누스바움의 ‘감정 이론’, 그 중에서도 ‘연민’ 이론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누스바움은 연민(Compassion)을 “서구 철학의 논쟁의 전통에서 가장 빈번하게 동의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감정, 가장 빈번하게 사적 삶뿐만 아니라 공적 삶에서도 합리적 숙고와 바람직한 행동을 위한 훌륭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감정”<sup>2)</sup>이라고 정의하면서, 연민의 감정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판단이며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연민으로부

1) <당신들의 천국>은 1974년 4월부터 1975년 12월까지 《신동아》지에 연재되었고, 1976년 5월에 문학과지성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후 1984년에 가로 읽기로 형식적인 부분을 수정하고 내용적인 부분도 일부 수정하여 개정판으로 재출간되었으며, 본고에서는 2012년에 출간된 문학과 지성사 『이청준 전집 11 - 당신들의 천국』을 바탕으로 삼았다.

2) 마사 누스바움, 조형준 옮김, 『감정의 격동 2 연민』, 새물결, 2015, p.548.

터 사회적 공감대와 사회적 제도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존의 철학자들<sup>3)</sup>이 “연민에서 도덕적 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은 많은 오류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윤리로 확장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며, 연민의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민이 사회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민을 배제하는 편이 훨씬 낫다.”<sup>4)</sup>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기를 드는 것이다.

누스바움은 연민이 인간 종개념을 아우르는 감정의 작용이라고 주장한다. “연민은 아시아의 몇몇 문화 전통의 핵심적인 개념이며, 연민이 집단 선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강력한 진화론적 증거와 이기주의적 상호성의 역할로는 환원불가능하다는 동물행동학의 증거가 존재한다.”<sup>5)</sup>는 점에 그 근거를 두고, 병리적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이 공적이고 사회적인 삶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로 작동할 수 있어 많은 사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인간적 가치에서 불평등하다는 식의 병적인 생각을 조장하는 제도에 의존하고, 인격 내부에서의 투쟁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극히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서 있는 연민이라는 감정은 사랑, 관심, 죄책감의 발달을 통해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고 그러한 경험은 외부 지향적인 관심을 강화시켜주며 남을 돕고자 하는 행동에 강력한 동기를 마련해준다.” 또한, 상실을 슬퍼할 수 있는 능력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3) 연민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하는 기존의 철학자들에 대해 마사 누스바움은, 플라톤, 스토아학과, 스피노자 그리고 몇몇 측면에서는 칸트가 이 입장을 옹호했으며, 니체와 Massaro, Henderson, Gerwitz 등 법학과 경제학 이론가들 역시도 포함된다.(마사 누스바움, 조형준 옮김, 『감정의 격동 2 연민』, 새물결, 2015, pp.645-649참조.)

4) 이 선, 「연민의 사회적 역할: 누스바움의 연민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제24집,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8, p.26.

5) 마사 누스바움, 조형준 옮김, 『감정의 격동 2 연민』, 새물결, 2015, p.552.

타자-지향적인 관심과 감정의 기본적 원천인데, 이를 함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술, 특히 비극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예술 중에서도 소설에서 연민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러한 소설을 통해서 ‘연민’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청준은 1965년 「퇴원」으로 등단하였고, 2008년 작고하였다. 100여 편이 넘는 작품을 발표해 왔고 많은 작품 수만큼 그에 대한 연구 역시 다양한 주제,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그의 작품을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청준의 소설들이 인간의 감정이나 정신적 측면을 다룬다고 분류되는 연구들은 정치적 혹은 정신적 자유를 위한 문학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인간 원형에 대한 탐구로 분석되기도 한다.<sup>6)</sup> 같은 맥락에서 자유에 대한 관념적 추구가 그의 소설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sup>7)</sup> 이렇게 작가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에 대한 욕망”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앞에 존재한다.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대상으로 감정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 연구들은 주로 ‘욕망’<sup>8)</sup>, ‘윤리적 측면’<sup>9)</sup>, 존재의 ‘소외’에 초점<sup>10)</sup>을

6) 성민엽, 『겹의 삶, 겹의 문학,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9, p.148.

7) 김윤식,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pp.397-403 요약.

8) 홍웅기, 「소설적 자유와 욕망의 실천가능성-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제5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pp.439-457.

송지연, 「욕망의 윤리적 소통: 이청준의 소설과 소설론에 대한 인간학적 접근」,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4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pp.29-56.

9) 서영채, 「과잉윤리와 물윤리 사이의 문학 : 이청준의 ‘참기름 사건’과 『당신들의 천국』」, 『한국근대문학연구』제18집, 한국근대문학학회, 2017, pp.139-168.

이미란, 「용서와 화해, 잊기의 윤리학: 이청준의 창작론 연구(2)」, 『현대소설연구』 제 54집, 현대소설연구학회, 2013, pp.361-391.

10) 이병국, 「『꽃길』에 복무하는 존재의 소외 :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실천문학』, 2017, pp.210-217.

맞추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감정을 인지주의적이며 합리적 판단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누스바움의 견해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지닌다. 누스바움은 감정을 “슬픔, 두려움, 기쁨, 희망, 분노, 감사, 미움, 질투, 질시, 연민, 동정, 죄의식” 등을 중으로 삼는 유개념으로서 욕구, 기분, 분위기, 욕망 등과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욕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누스바움의 감정과는 다른 개념인 것이다. 또한 윤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누스바움의 그것과 일치하는 점이 꽤나 넓어 보이지만 이 역시 과잉 윤리와 몰윤리라는 사회적, 집단적 차원의 윤리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존재의 소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그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에 그치고 있어 존재의 소외를 인지하고 연민의 감정을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앞선 논의는 누스바움이 주장하는 ‘감정’ 혹은 ‘연민’과 일정 부분 닿아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은 약해 보인다. 감정에 대한 누스바움의 철학적 입장은 인지주의적이며, 네 가지 특성을 내포하는데, “첫째, 감정은 대상을 가지며, 둘째, 감정의 대상은 감정 주체의 지향적 대상이고, 셋째, 감정은 대상에 관한 믿음을 체현하며, 넷째, 감정의 자각은 대상을 가치부여된 것으로 판단한다.”<sup>11)</sup>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이 연민의 감정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어떻게 연민을 유발하는지, 또한 ‘연민’이라는 감정의 다차원적인 모습은 어떠한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등장인물을 누스바움이 주장하는 연민의 인지주의적 요소에 적용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누스바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참고로 하여 연민의 세 가지 인지적 요소를 검토한다. 아리스토

11) 고현범, 「마사 누스바움의 연민론: 독서 토론에서 감정의 역할」, 『인간·환경·미래』,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5, pp.123-150.

텔레스의 주장에 따르면, 연민이란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괴로움에 대해 느끼는 고통스런 감정이다. 이것은 세 가지의 인지적 요소를 갖고 있다. 첫째, 고통의 심각성, 둘째, 해당되는 사람이 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 셋째, 연민을 느끼는 사람이 같은 고통을 느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다. 누스바움은 이 세 가지 요소에 ‘행복주의적 요소’, 즉 ‘불행인’이 자신의 인생 전망에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12)</sup>

<당신들의 천국>은 주요 인물들을 축으로 서사가 전개되며, 이 인물들의 갈등을 통해 중층적인 ‘공감의 플롯’<sup>13)</sup>을 유발한다.

첫째, 조백헌이 보여주는 소록도 주민들에 대한 연민과 그 인지적 구조에 대한 분석이다. “조백헌”은 경제 성장과 양적 팽창을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권 역시 제할될 수 있다는 군부 독재 하의 육군 장교이다. 그는 구성원의 노력과 희생은 완성된 낙원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전체주의적 이념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지만 여러 상황들을 겪으면서 섬 주민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그에 따른 태도 변화를 보여준다. 이를 누스바움이 주장하는 연민의 인지적 구조에 따라 분석하고 연민의 행복주의적 조건과 연민의 ‘정도’를 살펴본다.

둘째, “이상욱”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통해 섬 주민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낙원은 무엇인지, 어떻게 낙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과 자살한 ‘한민’ 청년이 쓴 소설을

12) 이선, 「인공지능과 감정지능-누스바움의 감정론을 중심으로」, 『건지인문학』제19집,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pp.161-179.

13) ‘공감의 플롯’이란 주요 인물이 처음에는 타인에게서 이질감을 느끼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타인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를 공감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다(류동규, 「타자 이해를 위한 ‘공감의 플롯’ 읽기」, 『국어교육연구』제71집, 국어교육학회, 2019, pp.239-240).

통해 그의 아픔을 보여주고 그가 조백현의 부임 직후부터 섬 주민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여 조백현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가 가지는 섬 주민들에 대한 연민은 본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연민으로도 연민의 층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이상욱이 가지는 자기 연민과 약간의 자기혐오가 원생들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셋째, 연민의 방향에 대한 분석이다. 조백현과 이상욱처럼 타인 혹은 타 집단에 대한 연민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연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민이 자신을 향할 때, 그 연민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한 모습들도 황희백 노인을 통해 <당신들의 천국>에서 보여주고 있다. 조백현과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나병 환자들의 실질적인 우두머리인 '황희백 노인'의 서사는 어린 시절에 대한 회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해는 독자들이 황희백 노인 현재의 서사를 이해하는 것의 전제가 되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당위를 자기 연민의 감정에 의존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한 자기 연민이 타인에 대한 혐오가 되기도 하고, 윤리적 규범과는 어긋난 행태로 발전하기도 한다.

## II. 조백헌을 통해 본 연민

### 1. 조백헌을 통해 본 연민의 인지적 구조

누스바움은 연민과 관련된 용어 중 pity, sympathy, empathy 등과 compassion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이는 본고의 서두에서 언급한 연민의 정의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논의에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sup>14)</sup> 누스바움의 견해에 따라 연민이 곧 감정이입과는 차별되는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당신들의 천국>의 각 인물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독자로 하여금 연민의 감정을 이끌어내는지 살펴보겠다. 우선 연

---

14) pity, sympathy, empathy 등이 학문적 텍스트와 일상용법에서 모두 쓰이는데, 저자가 연민이라고 부르는 compassion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① 연민: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불행을 겪고 있다는 인식에 의해 초래되는 고통스런 감정으로 아시아의 몇몇 문화 전통에 핵심적이기도 하며, 집단선택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는 진화론적 증거 존재, 영장류와 인간의 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이기주의적 상호성의 역할로는 환원 불가능하다는 행동학의 관련 증거도 존재한다.

② pity: 고통을 겪는 사람에 대해 생색을 내고 그보다 우월한 듯한 누앙스를 최근에 가진다.

③ empathy: 다른 사람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든 특별히 가치평가하지 않고 상상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다.(감정이입으로 번역) 연민과 empathy는 분명히 다르고, empathy가 연민을 나타내기에 불충분하지만 종종 상상적 재구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것이 나쁘다는 판단과 어떤 식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다. empathy는 단지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한 상상적 재구성에 불과하다.

④ sympathy: 영국의 18세기 텍스트들에서 연민이라고 부르는 것에 상응하는 감정으로 나타난다. sympathy는 ‘동정’으로 사용되는데, 동정과 연민 사이에는 연민이 보다 강렬해 보이며, 고통당하는 사람 쪽뿐만 아니라 이 감정을 가진 사람 쪽 모두에서 더 큰 정도의 고통을 암시한다. 또한, 동정과 공감 또는 감정이입과는 아주 다르다. 타인의 고통에 즐거움을 느끼는 악의적인 사람은 감정이입은 할 수 있지만 동정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마사 누스바움, 조형준 옮김, 『감정의 격동 2 연민』, 새물결, 2015, pp.552-556 재구성)

민을 유발하는 장치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회현실을 압축하여 나타내고 작중인물의 내면의식을 반영하는 핵심장치로 특정한 공간을 설정하여 공간과 인물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형상화하고 작품의 비극성을 심화하거나 작가의 메시지를 담아내기도 한다. <당신들의 천국> 역시 공간적 배경으로 '섬'을 설정하고 있다. 나병 환자들이 격리 수용되어 있는 소록도라는 폐쇄적인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자유가 억압당하고, 가족을 비롯한 '건강인'들과의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등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가 훼손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그 폐쇄적인 섬의 내부적으로도 병사(病舍)지대와 직원지대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공간 설정들은 수용미학적 측면에서 독자로 하여금 1차적인 연민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누스바움이 주장하는 연민의 인지적 요소인 심각성(크기), 부당함, 본인도 유사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인간적 연약함의 인정을 기준으로 조백현이 보여주는 연민의 인지적 구조를 살펴본다.

조백현은 현역 육군 의무장교 대령으로, 소록도의 병원장으로 발령받은 첫날부터 달갑지 않은 선물을 받게 된다. 바로 두 사람의 탈출 사고가 그것인데, 새 원장이 부임하면 으레 있어왔던 관례 정도로 받아들이라는 것에 의문을 표한다. 그리고 자체조사를 통해 섬의 4대 원장 주정수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고 섬과 육지를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숨을 건 탈출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다. 그리고 이 섬을 탈출하는 이가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그 계획들은 이 소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알레고리를 통해 볼 때, 군부 독재와 강압적 지배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나라가 온통 재건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우리들이야말로 이 섬을 다시 꾸미러 나서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들의 그것보다 값지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 그것은 먼저 여러분의 협조와 솔선수범입니다. …… 저의 말씀을 몇 마디로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섬의 재건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시 정정당당, 인화단결, 상호협조, 이 세 가지를 생활지표로 삼아달라는 것입니다. …… 여러분은 기필코 여러분 자신의 인간개조를 이룩해내십시오. 여러분의 새로운 낙토를 위해 이 사람은 신명껏 그것을 돕겠습니다. 아니 강제로라도 하겠습니다.(73-75쪽)

이처럼 섬의 재건 사업, 오마도 간척사업은 조백헌이 나병 환자들의 천국, 지상 낙원, “당신들의 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핵심 공약이 된다. 그 간척사업의 목적이 국가적 이념에 부응하는 가시적이며 건설적인 양적 팽창이라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동안 불치병으로 인식되어 온 한센병이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의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소록도 주민들에게 오마도 간척사업을 제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진정 소록도 주민들의 아픔을 씻어내고 건강인과의 자유로운 왕래와 소통 등, 합일을 지향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섬 주민들은 전임 주정수 원장의 ‘배반’에 대한 상처와 후유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조백헌의 공약을 불신하게 되고 “치욕과 절망과 배반”으로 점철된 과거로부터 주민들을 벗어나게 하고자 위와 같은 인간개조를 주창하기에 이른다.

이후, 조백헌은 소록도를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섬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또한 주정수 원장의 그림자를 지우고, ‘배반’이라는 상처를 지우기 위해서 축구팀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이때 조백헌의 1차적인 태도 변화가 이어난다.

- 인마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축구 선수란 말야! 다를 게 아무 것도 없단 말이닷! …… 이제까지 무심하던 관중은 빨간 유니폼에 환성과 박수를

보냈다. 몇몇 여학생은 돌아서서 울기까지 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 장교의 염원이 저토록 간절할 수 있는가.(168-169쪽)

위의 부분에서 조백헌은 건강인과의 축구 시합 결승전에서 나병 환자들과 일반인들이 다르지 않음을 역설하며 나병 환자들의 자존감과 자신감, 희망 등을 심어주고 있다. 이 장면이 간척사업에 나병 환자들을 자발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축구를 사용했고, 감정을 활용한 전략적인 측면의 단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때부터 조백헌은 나병 환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간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대표를 뽑아 장로회를 결성하였으나 동조를 구하는 데 실패하고, 황희백 노인의 편지를 받은 후 서로 간의 배반은 없을 것이라는 서약식을 통해 간척 사업은 시작된다. 그러나 간척 사업이 시작되자 내지 사람들이 몰려와 난동을 부리고, 조백헌과 내지 사람들 사이에 담판을 짓기 위한 짧은 대담이 오고 간다. 이때 조백헌은 국가 이념, 혹은 본인의 업적과 완전히 벗어나 오로지 섬과 내지를 연결하여 온전한 의미의 출소록(出小麓)을 이루겠다는 연민의 태도가 드러난다.

공사장에서 밤을 새운 작업대원 하나가 느닷없이 숨을 헐떡거리며 관사문을 뛰어들어왔다. 오마도 대안 일대의 마을 사람들이 수백 명씩 작당을 해서 성난 파도처럼 공사장을 습격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조원장은 그길로 곧 배를 내어 공사장으로 달려갔다. …… “좋소. 어차피 나도 이 일을 쑥덕공론으로 해결할 생각은 아니었소. 지금 여기서 함께 이야기 할시다. 내가 먼저 이야기하겠소.” …… 원장은 이곳으로 올 원생들이란 예전에 병을 앓았거나, 병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들을 부모로 해서 태어났다는 허물 아닌 허물을 지닌 사람들일 뿐 지금은 일반 건강인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힘주어 설명했다. 그리고 이곳이 아니면 다른 어디로 가더라도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살아갈 땅을 새로 마련해야 할 처지에 있으며 이곳 아닌 다른 어느 곳에서도 똑같은 반발과 학대가 뒤따르리라는 것을 알고 ……

간곡한 이해를 촉구했다. …… “조상 가운데 수상한 내력이 없다면 지금 그 말 잘 명심해서 들어둬야 할 거요.” 동료들 등 뒤로 얼굴을 가려 숨긴 사내 하나가 마지못해 한마디 농기 어린 충고를 지껄이자 원장의 주위에선 노골적으로 그를 비웃은 웃음소리가 번지고 있을 뿐이었다. …… “난 아마 조상 가운데 문둥이 내력이 있었던 모양이오. 그러니 이제 당신들과는 더 이상 이야기를 계속할 수가 없을 것 같소. …… 이 조백헌이 모가지를 내걸고 다시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걸 명심해두시오.”(218-230쪽)

누스바움이 주장하는 연민의 구성 요소 3가지가 해당 논박에서 드러난다. 첫째, 크기에 대한 것이다. 조백헌은 섬에 격리되어 수감자와 같은 생활을 하는 원생들에게 간척지의 땅을 나누어 주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한다. 이는 병사 지대에서 아무런 믿음과 희망이 없이 지내는 나병 환자의 현실과 건강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스스로 간주해버리기까지 하는 나병 환자들의 고통의 크기가 매우 큰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둘째, 조백헌은 소록도 나병 환자들 중 완치가 된 이들과 부모가 나병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록도에서 미감아(未感兒) 신분으로 격리되어 있는 자들이 가지는 그 고통이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나의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인간적 연약함과 그에 대한 행복주의적 관점에서 조백헌은 “난 아마 조상 가운데 문둥이 내력이 있었던 모양이오.”라는 진술을 통해 성공에 대한 맹목적인 수단으로서의 간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나병 환자들에 감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많은 사건, 사고들을 겪고 견디며 간척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간척 사업의 공과를 가로채기 위한 내지 사람 몇몇의 계략으로 도청에서 간척 작업의 실적 평가와 기술 조사를 위한 사내들이 파견된다.

이때 조백헌은 나병 환자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바탕으로 한 권익 보호를 위해 도지사와 논박을 벌인다. 이는 누스바움이 주장하는 연민과 이

타주의의 관계에 기반한 조백현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누스바움은 “연민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고통 받는 사람의 운명을 가능한 한 좋게 만들어주려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생각 속에서 일정한 인간적 사실을 모종의 방식으로 경청하도록 만든다. 이는 그가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동기를 부여받는다. 하지만 규범적 윤리를 위해 연민을 본연의 관심, 중요한 곤경, 응당과 책임에 대한 타당성 있는 규범적 이론과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연민이 이타적 행동에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내리기 어렵지만 남을 돕는 행위는 이기주의에 기반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전 이 일로 해서 무엇보다 먼저 그자들(나병 환자)의 더러운 비렁뱅이질을 그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조그만 땅이라도, 그들끼리 한곳에 모여 살 자신들의 땅을 갖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어느 정도는 희망을 가지게끔 되었습니다. …… 저들은 아마 저들의 썩어들어가는 몸뚱이를 물속에 던져넣어 독을 썩아 울리라 해도 능히 그렇게 할 각오들이었습니다. …… 저와 저 손가락이 없는 문둥이들의 손으로 일을 끝내고 맙니다.”(339-340쪽)

이 말을 들은 도지사는 그를 달래기 위해 “일을 누가 끝내게 되든 공사가 완성되면 그 농토의 분배권만은” 충분한 보상을 주겠다고 달래지만 조백현은 물러서지 않는다.

“월생들로부터 오마도를 빼앗는 것은 저들에게 땅을 빼앗는 것만이 아닙니다. 문둥이들에겐 땅보다도 더욱 값지고 귀한 것이 그 오마도에 있습니다. 모처럼 제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겠다는 희망과 긍지야말로 오마도 앞바다를 막아 건져낸 땅의 몇십 배 몇백 배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서 오마도를 빼앗는 것은 모처럼 움이 돋기 시작한 그 희망과 긍지와 저들의 삶 전체를 빼앗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저들에게 희망을 기너

보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 밝은 태양 아래 사람으로 살아 있는 최소한의 보람과 긍지를 경험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결코 물러설 수 없습니다.”(340-341쪽)

이와 같은 조백헌의 태도는 첫 부임 시기 낙원을 건설하겠다는 ‘이기적인’ 의지와 간척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드러난 간척 사업의 ‘이기적인’ 목표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조백헌은 연민의 감정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지, 누스바움이 주장하는 연민의 구조나 이타주의와의 관계 등을 보여주는 적합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 2. 조백헌을 통해 본 연민의 행복주의적 조건

누스바움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연민의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셋째, 나도 고통을 받는 사람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을 볼 때만 연민을 느끼게 되리라는 것에 의구심을 품는다. 이 명제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이 감정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유사성을 볼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에 따르면 고통을 받고 있는 타인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의 고통은 오직 나 자신과 타자 사이의 어떤 종류의 공통성을 인정할 때만, 그러한 고통에 직면하는 것이 내게는 어떨지를 이해할 때만 나의 관심의 대상, 나 자신의 안녕에 대한 느낌의 일부가 될 것”<sup>15)</sup>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누스바움은 감정의 행복주의적 성격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이 세우고 있는 목표와 기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며, 그러한 사람의 불운을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15) 마사 누스바움, 조형준 옮김, 『감정의 격동 2 연민』, 새물결, 2015, pp.580-581.

한다. 즉, 연민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는 나도 비슷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한 상상을 통해 확대되는 행복주의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조백헌은 처음 부임 당시는 물론, 소설이 끝날 때까지도 본인이 나병 환자가 될 가능성이, 지배-피지배 구조에서 본인이 피지배인이 될 가능성, 본인이 세찬 바닷물을 뚫고 나가 탈출을 하게 될 가능성, 간척사업에서 손발이 떨어져 나가면서까지 강제 노역에 시달릴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루소의 견해에 따르면 조백헌은 문둥이들에게 연민의 감정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누스바움의 견해처럼, 행복주의적 판단을 내려보면 조백헌의 태도 변화로 인한 연민은 이해될 수 있다.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자신이 세우고 있는 목표와 기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백헌의 목표와 기획은 천국 혹은 낙원을 건설하는 것이며, 그 목표와 기획에 나병 환자들의 낮은 자존심, 주정수 원장의 배반으로 인한 상처와 이쁨 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나병 환자들의 불운이 조백헌이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조백헌의 태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연민들이 항상 행복주의적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행복주의적 판단에 따라 유발된 연민이라는 감정에 대한 “사적 삶뿐만 아니라 공적 삶에서도 합리적 숙고와 바람직한 행동을 위한 훌륭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의는 연민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의 정의라 할 수 있다. 조백헌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연민의 감정이 아니었고, 국가적 이념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목적의식을 가졌을 때는 나병 환자에 대한 연민의 정도가 없거나 매우 낮은 단계라 할 수 있고, 서사 흐름 상 연민의 정도가 서서히 커져 본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강한 행동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즉, 연민의 감정이 ‘있다/없다’의 논의보다는 연민의 정도에 초점을 맞춘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연민이 약할 때와 강할 때, 연민으로 인해 유발되는 합리적 숙고와 바람직한 행동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조백헌의 태도 변화는 정도의 차이에 따른 연민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Ⅲ. 이상욱을 통해 본 연민과 혐오의 관계

<당신들의 천국>은 강력한 알레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규태 기자의 르포인 <소록도의 반란>(사상계, 1966)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조창원이 라는 입지전적인 인물이 조백헌의 실제 모델이었다는 사실, 소록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씨앗으로 삼는 점, 4.19혁명이 쿠데타로 인해 미완에 그치고 말았다는 작중 시대 배경 등”<sup>16)</sup>은 그 알레고리에 대한 확신을 부여한다. 실제 기자인 이규태 기자 역시도 소설 속에 ‘이정태 기자’로 분하고 있다.

해당 르포로 다루어진 실제 소록도의 사건들이 소설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이상욱 보건과장’의 존재이다. 대부분의 인물들과 사건들이 실제 일어난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상욱은 작가 이청준에 의해 창조된 인물이다.<sup>17)</sup>

16) 이동재,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윤리성 연구 - 이상욱의 주체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제5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5, pp.189-213.

17) 이상욱뿐만 아니라, 한민, 사토, 이순구 등도 실존인물은 없으나 소설 내에서 가지는 비중을 봤을 때, 이상욱의 창조는 부수적 지위에 머물지 않는다(이병렬, 「소설의 허구화 과정에 대한 한 연구-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제1집, 한국현대소설학회, 1994, p.168 참조.)

이상욱은 미감아 출신이지만 그의 과거를 아는 이는 극히 드물며, 그 스스로 나병 환자와 건강인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조백현이 추구하는 '천국'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조백현의 야욕을 견제하는 인물이다. 조백현에 대한 '감시자'로 기능한다는 것이다.<sup>18)</sup>

조백현의 부임 첫날, 두 명의 탈출 사고를 숨겼다가 부임식 이후에 보고 하자는 다른 직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보고를 하는 모습, 그리고 조백현과 현장 조사를 하러 가면서부터 이상욱은 조백현의 감시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동상'으로 대변되는 조백현의 야욕이 생겨나기 전부터 견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당신 자신이 알아보시오. 그자들이 왜 이 섬을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지, 왜 당신에게 그자들이 말을 피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당신을 두려워하고 정직한 대답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신 스스로 그것을 배워 알도록 해보시오. 아마 당신이 이 섬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도 모를 일시오. (28-29쪽)

또한, 이상욱은 본인이 미감아라는 사실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서미연과 그의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는데, 건강인 서미연은 섬 생활로 인한 어려움을 이상욱에게 의지하고자 하며, 호감을 드러내기도 하는 인물이다.

상욱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녀는 섬에 들어온 이후부터 유독 그 상욱한테만은 의논거리들을 자주 가지고 찾아왔다. …… 거의 모든 일을 상욱에게 의논하고 의지해온 형편이었다. …… 사내 혼자 지내는 밤 숙소까지 몇 차례 내방해온 일이 있는 여자였다. 하지만 상욱은 실상 그녀가 가지고 온 의논거리보다 그

18) 나병철, 「당신들의 천국과 권력의 미시물리학」, 『현대문학연구』제9집, 한국문학연구학회, 1997.

이상의 어떤 간절한 고백의 말 같은 것을 그녀의 분위기에서 자주 느껴오곤 하던 터였다. …… 하지만 그녀는 번번이 그걸 채 말하지 못한 얼굴이었다.(44-45쪽)

늘 침착하고 가지런하기만 하던 상욱의 동요 앞에 미연은 모처럼 어떤 은밀스런 안도감 같은 것을 느낀 모양이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상욱의 기분을 쓰다듬어주는커녕 그녀는 이날 저녁 상욱에게 또 한 가지 지극히 불편스런 생각의 매듭을 더해준 것이다. ……미연은 문득 몇 번이나 망설여온 그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반가운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었다. 출생의 비밀을 털어놓음으로써 그녀가 상욱에게 하고 있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응대해나가야 할지 상욱은 아무래도 분명한 자신이 서오질 않고 있었다. 문득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충동이 머리를 지나간 일은 있었다. 소년의 이야기라면 아마 그녀를 제법 위로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상욱은 끝내 소년의 이야기마저 단념을 하고 말았다. 미연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혐오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위로나 동정보다는 정체 모를 실망감이 앞서고 있는 그 자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혐오감 때문이었다.(126-128쪽)

이상욱은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에서 줄곧 ‘소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그 자신의 출생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함을 함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서미연이 이상욱 자신에게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서미연이 미감아 출신이라는 것을 이상욱에게 고백하였을 때, 이상욱은 그녀에게 연민이 아닌 혐오감을 느낀다. 이 혐오감은 미연에 대한 혐오감인 동시에, 그러한 과거를 공유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혐오이다. 소년의 이야기를 해주며 미연을 위로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인정과 수용을 나타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끝내 소년의 이야기마저 단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욱은 이후에 섬을 떠나게 된다. 떠나는 순간까지도 상욱은 미

연에게 자신이 미감아였음을 밝히지 않으며 본인에 대한 혐오감과 천국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낸다.

누스바움에 따르면 이러한 혐오감은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로 구분된다. 원초적 혐오는 본능적인 것이며, 투사적 혐오는 사회적인 학습과 경험을 통해 습득된 감정이다. 이러한 혐오는 연민을 방해하는 요소이며 수치심, 질투심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또한, 감정이입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취약성에 대한 자기기만적인 생각을 조장할 가능성을 가진다.

여기서 이상욱의 혐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투사적 혐오이며, 이는 섬 주민들에 대한 연민과 본인에 대한 연민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이상욱의 자기 혐오는 본인이 병력이 없지만 미감아 신분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어린 시절 숨겨져 자랐으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살 수 밖에 없었던 회상 장면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소년의 첫 번 기억은 그가 자란 방에 관한 것이었다. 방문이 언제나 꼭꼭 걸어 잠겨져 있었다. 소년은 허구한 날 언제나 그 문이 잠긴 방에서만 숨어 지냈다. 손가락 하나 문밖으로 몸을 내밀어본 일이 없었다. 바깥으로 소리가 새어 나갈까 봐 어렸을 때부터 울음소리 한 번 맘대로 내어본 일이 없었다. ……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다. 소년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들을 무서워했다.(120-121쪽)

이러한 유년 시절의 아픈 기억은 자신으로 대변되는 섬 주민들에 대한 연민으로 발현된다. 자신이 바로 소록도의 문둥이 전체인 것이다. 또한, 소설 전체를 아우르는 조백현에 대한 감시 역할의 목적이 바로 주정수 원장의 그림자를 지우고 나병 환자들이 '사랑'과 '자유'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문둥이들의 진정한 자유, 건강인과 문둥이가 합일에 이르게 하기 위한

조백헌의 ‘사랑’은 원장이라는 직함 앞에서 끊임없이 의심받게 된다. 강압과 위계로 인한 ‘사랑’이 변질되어 나병 환자 전체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는지 주정수 원장이 너무 잘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상욱은 이를 조백헌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오마도 간척사업의 막바지 단계에서 조백헌에게 섬을 떠나라고 충고를 한 뒤, 까닭도 없이 홀연 섬을 떠나가 버렸다. 상욱은 나병 환자인 탈출자들처럼 차가운 밤바닷물로 뛰어들어 목숨까지 내걸어야 했을 이상스런 방법으로 불편스럽게 섬을 나갔다. 이는 건강인으로 분류되었던 자신이 오마도 간척사업, 즉 천국에 내비치는 분명한 메시지로 보인다.

건강인과 나병 환자라는 지배-피지배 구조에서 이상욱의 이러한 탈출은 절대 화합할 수 없는 건강인과 문둥이들의 기존 관념을 뒤흔들게 된다. 그리고 완전한 합일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배-피지배의 구조부터 타파해야함을 역설한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혐오감에서부터 시작한 건강인으로서의 자기 연민이 섬의 나병 환자 전체에 대한 연민으로 확장되면서 이상욱은 그토록 꿈꾸어 온 진정한 천국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그 결과, 조백헌은 타의에 의해 마산의 어느 요양병원 원장으로 복무하던 중 이상욱의 편지를 받고, 권력의 정점인 원장이라는 위치에서 벗어나 섬 주민의 한 사람으로 다시 섬으로 돌아간다. 지난 날 위계와 강압에 근거한 ‘사랑’과 연민으로 섬 주민들을 위했다면, 이때는 동등하고 수평적인 위치에서 섬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병 환자인 윤해원과 미감이 출신이지만 건강인인 서미연의 결혼을 주선하고, 그들의 신흥집을 병사 지대와 건강 지대의 경계선에 걸치게 건설하는 등 진정한 합일에 이르기 위한 많은 양상들을 보여준다.

그(이정태)는 거기서 참으로 예기치 못한 광경에 머릿속이 잠시 어리둥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조 원장의 텅 빈 숙소 앞 마루 한쪽에 웬 사내 하나가 조 원장의 방 안 동정에 귀를 기울이고 서 있다가 숙사 문간을 들어서서 이정태에게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며 기척을 죽이라는 시늉을 해보였다. …… 긴장하고 있던 상욱의 얼굴 위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한 가닥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정태는 아직 그 상욱의 웃음을 읽어낼 수가 없었다. 어찌보면 그는 조 원장의 그 너무도 직선적이고 순정적인 생각에 다소의 감동을 받은 듯 싶기도 했고, 어찌보면 오히려 씩씩한 비웃음을 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490-494쪽)

소설의 마지막 장면인 이 부분에서 섬을 떠났던 이상욱이 윤해원, 서미연의 결혼식 날, 몰래 섬으로 잠입하여 축사연습을 하는 조백헌을 엿들으며 미소 지어보이는 장면은 본인이 추구했던 천국의 조건인 “사랑과 자유의 화해”로 규정된 합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부단한 실천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표지”<sup>19)</sup>로, 이상욱이 가지고 있는 연민으로 인한 조백헌과 섬 주민들 모두 행동변화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IV. 황희백 노인을 통해 본 ‘자기’ 연민

황희백 노인은 소설의 처음부터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다. 하지만 조백헌과 이상욱이라는 큰 서사의 줄기와 섬 주민들인 나병 환자를 이어주는 주조연급의 매개자적 인물이다. 황희백의 등장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조백헌은 나병 환자들에게 자신의 낙토 건설에 대한 연설이 무시당하자

19) 정과리, 『(해설) 용서, 그 타인됨의 세계』, 겨울 광장, 1987, p.434.

섬 안에 장로회 조직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불안스런 침묵의 벽을 허물어 뜨리기 위한 방책”으로 병사 지대 7개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을 각각 한 사람씩 뽑아 조백현의 자문 역할을 맡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로회 구성 역시 주정수 원장이 ‘평의회’라는 이름으로 시행했다가 변질된 정책이었다.<sup>20)</sup> 공식 의결 기구로 삼고, 5천 명 환자를 대표한 장로회의 이름으로 시정 건의를 내어달라는 조백현의 결단에도 장로회가 꿈쩍도 안한 이유이기도 했다. 바로 권력자가 행할 수 있는 ‘배반’과 환자 본인들 자신들의 ‘배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이상욱의 설명을 듣고 이상욱에게 그들의 대표를 만나보라고 지시한다. 이렇게 혈기왕성한 조백현의 계획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상욱, 5천 명의 원생 그 세 꼭지점 사이에 황희백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황희백이 원생들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겪은 “고통의 크기”가 매우 컸음에 기인한다.

섬 안 5천여 원생 가운데 그 나름대로 한 맺힌 내력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섬의 비극은 이미 이곳을 찾아와 살다 죽어갔거나 아직도 살아 있는 사람들의 수에나 맞먹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중에도 황희백 노인에게 남달리 엄청난 내력들이 숨겨져 있었다. 병을 얻고 섬에 들어와서 그가 오늘날까지 겪은 일들에는 유독히도 끔찍스런 사연들이 많았다. 전설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이 섬의 슬픈 역사의 표상이었다. 살아 있는 신화의 주인공이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말이 없었다. 의연하게 눈을 감고 시련을 감내하면서 언젠가 그 모든 시련이 끝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섬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그 황희백 노인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말없이 그를 따랐다. …… 황희백 노인만 만나면 장로회 사람들뿐 아니라 섬사람 모두

20) 권력을 잃기가 두려워진 평의원 ‘이순구’가 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차츰하며 원생들을 괴롭혔고, 참다못한 원생 한명이 이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원생 서로에 대한 배반으로 이어졌다.

를 만난 것이 될 수 있었다.(112-113쪽)

이상욱의 위와 같은 생각에서 황희백이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겪은 고통의 크기가 가장 크고 깊으며, 섬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지니고 있었고, 따르며, 그만 만나도 전체 원생을 만난 것과 같다고 하며, 황희백의 내력과 섬 내부에서의 대표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백현은 오마도 간척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원생들의 자발적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미 공사는 시작되었다고 밀어붙이는데 이때 황희백이 편지를 통해 원생들의 '배반'에 대한 두려움을 소거하기 위한 서약식을 제안하며 그 매개자적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문둥이가 아닌 사람으로 이 섬을 나가기 위해 갖은 시련을 겪어왔소.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속아왔소. …… 우리의 소망과 노력 뒤에는 언제나 배반밖에 남는 것이 없었소. 위정자가 우리를 속였고, 원장들이 속였고, 병원 직원들이 우리를 속였고. 거짓 얼굴을 한 자선가들이 우리를 속였고, 육지의 약장수들이 우리를 속였고 심지어는 고향의 육친들과 교회의 형제들마저도 우리를 속이거나 버리고 돌아서기 일췌였소. 그리고 마지막엔 문둥이 자신들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을 배반했소. …… 이제 원장께 부탁하겠소. …… 원장은 우리가 저 바닷속에서 우리의 땅을 건져내어 섬을 나가게 한다는 약속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서약해주시오. 이 일이 만약 또 한 번의 고난스런 시련으로 끝나고 말 때, 원장은 우리 주님과 후손의 이름을 가장 욕되게 팔고 있는 인간이 될 것이오.(208-210쪽)

그리고 황희백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는 잠입 취재를 위해 소록도에 들어왔다가 인부들에게 들롱나 원장에게 끌려온 이정태 기자가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전 오늘 원장님께 제가 알고 있는 황 장로의 옛날이야기를 들려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더욱이나 그 황 장로 당자의 입에서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그것은 불길한 경고가 아닐 수 없었다. (250쪽)

이정태 기자는 간척 사업에서 독이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황희백의 옛날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하루하루 늘어가 있다고 말한다. 그 옛날이야기란 결국 며칠 후 황희백 스스로 조백헌을 찾아와 꺼내기 시작한다.

황희백은 어린 시절, 땀장이 일을 하는 늙은 할아버지 일을 도우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유랑민들에 의해 어머니가 무참한 죽임을 당한다. 노인과 소년은 어머니와 집을 버리고 유랑민 사이로 끼어들었다. 그렇게 며칠 후 늙은 노인은 숨을 멎었고 소년은 외톨박이로 길을 걷다가 웬 여인을 만났다. 그 아낙은 소년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었고 그러한 행운의 대가는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어주는 것이었다. 소년은 잠이 부족했지만 경제적 의존상황에서 그 만들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유랑민 중 젊은 사내 무리와 섞이게 되었고, 아낙은 더 이상 소년에게 성행위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때, 소년은 해방감보다는 보리 쌀을 더 이상 나누어주지 않을까 걱정한다. 다행히 소년은 사내들이 시키는 절도, 동물 사냥, 강간 및 살인 방조 등의 일을 잘해내어 무리에 계속 있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그 사내들의 무리가 문둥이 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자신의 몸에도 이미 붉은 반점이 솟아나고 있었다. 그래도 소년은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한 용기가 솟았고, 패거리를 떠나 경상도 봉화 땅의 한 주막집에서 주동 노릇을 하게 되었다. 그 주막집 주인은 주모를 길손에게 안겨주고 손님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즐겼다. 소년은 스스로 그러한 주인 역할을 하였고, 어느 날 그 주모가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소년을 유혹하자 소년은 부엌칼로 주모를 살해한다. (262-272쪽 요약)

이러한 과거 회상 후에 황희백은 “이건 우리 섬 문둥이들 모두의 이야기야.”라고 말하며 섬의 나병 환자들과 자신을 동일화하고 있다.

이러한 황희백을 통해서 연민의 구조를 살펴보자면, 첫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통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 이는 다른 이상옥의 진술에서도 드러나지만 직접 과거에 대한 회상을 보여주며 그 고통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응당/부당에 대해서는 황희백의 고통이 어머니의 죽음, 노인의 죽음, 유랑생활, 성적 학대 피해, 나병 감염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을 때, 어느 것 하나 응당 고통을 받아야 했을 것은 없다. '병자년 흉년 겨울'라는 시간적 배경만이 제시되었을 뿐, 유랑민의 발생 원인이나 남향의 이유 역시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 하지만 어머니의 죽음부터 땀장이 노인을 도와 하루하루를 살던 어린 소년에게는 부당한 고통인 것이다. 또한 아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한 것 역시도 경제적 의존관계에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적 맥락을 가진다. 매일 아낙이 챙겨주는 한 줌의 보리쌀뿐만 아니라 아낙과 살을 맞대고 자는 훈훈한 새벽잠, 길을 걷는 것도 혼자서는 심심하고 겁나는 일이라는 외톨이 소년다운 이유는 성적인 학대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독자들이 수궁할 수 있는 이유이다. 셋째, 행복주의적 판단인데, 이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이 세우고 있는 목표와 기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며, 그러한 사람의 불운을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이 본인이라면 자동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황희백은 본인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스스로 연민하는 것이다. 바로 연민이 타인을 향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향하여 작동한 것인데, 이러한 자기 연민이 비윤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이끌어냄을 보여준다.

“우리가 원장을 어떻게 하고 싶어 이리는 건 아니라고 말해도 영 끝이가 들리질 않는 것 같구만그래. 우리가 원장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다니 천만의 말씀이지. 원장을 어떻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원장이 자기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는가를 지켜보러 온 것뿐이라니까 그러네.” …… “원장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배반도 없게 해주십시오, …… 오늘 밤 우리가 지금 원장에게 그 서약을 물으려는 건 아니야.” …… “함부로 피를 보게 한 것은 원장 쪽이 먼저였으니까. 우리 문둥이들이 자기들 일을 하면서 피를 흘린 만큼 원장은 자신의 일을 위해 자기 피를 흘린 일이 없었거든. 원장은 언제나 우리에게만 피를 흘리게 했지. …… 하지만 앞으로 흘리게 될 열 방울의 피를 아끼기 위해 오늘 한 방울의 피를 보아야 되겠다면 주님께서도 아마 용서를 하실 게라고, ……”(321-325쪽)

황희백의 위의 진술은 오마도 간척 사업 중 흥흥한 소문이 돌아 다섯 명의 제물이 바쳐져야 신이 공사를 돕는다고 하여 다섯 번째 제물로 삼기 위해 조백헌을 찾아가서 위협하는 장면이다. 원생들의 대표자였던 황희백은 열 방울의 피를 아끼기 위해 오늘 한 방울의 피를 보아야 되겠다면 주님도 아마 용서를 하실 거라 주장한다. 이는 황희백이 과도한 자기 연민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그릇된 윤리 의식을 함양한 결과가 드러난 사고방식이며, 조백헌과의 논박에서 역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적 사고를 하지 못함이 드러난다. 과도한 자기 연민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기묘한 말의 요술이었다. 배반이 없게 하자고 똑같이 서로 서약을 하고 시작한 일이었다. 배반을 당한 기분으로 말하면 이날 밤 조 원장 쪽에서도 결코 원생들만 못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은 오히려 그 황 장로와 원생들 쪽일 수도 있었다. …… 이유는 다만 조백헌 그 한 사람만이 문둥이가 아니라는 점 때문일 터였다. 문둥이가 아닌 조백헌 한 사람과 문둥이들뿐인 섬사람들 사이에서 배반은 그토록 일반적으로 결판이 나고 있었다.(323-324쪽)

위의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논박이 일어나지 못하고 문둥이들은 오로지 문둥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백헌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

는 황희백을 비롯한 원생들의 과도한 자기 연민으로 인한 나르시시즘적 사고이며, 비윤리적 행태라고 할 수 있다.

황희백이 보여주는 자기 연민으로 유발되는 비윤리적인 정서 상태 묘사나 행동들은 누스바움의 주장하는 바와 대치된다고 할 수 있다. 누스바움은 연민을 비롯한 감정이 개인적인 윤리적 숙고뿐만 아니라 공적인 윤리적 숙고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황희백의 경우처럼 자기 연민이 과잉일 경우에는 오히려 윤리적 숙고의 자세를 상실하고 과도한 나르시시즘적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조백현의 경우에서처럼 연민의 유발 시점부터 연민의 크기나 정도, 거기에 방향(타자를 향하는지, 자신을 향하는지)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고려되어야 연민이 사적, 공적 삶에서 합리적 숙고와 바람직한 행동을 위한 훌륭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본고에서는 마사 누스바움의 '감정' 이론 중 '연민' 이론을 소설 등장인물에 적용하여 소설 작품 이해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권력자, 위정자이자 당대 군부 독재의 국가적 이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백현이 원생들과 동고동락하며 원생들에 대한 진정한 천국을 만들고자 노력하게 되는 태도 변화의 기저에는 성장하고 있는 연민의 감정이 있었고, 건강인 쪽에 있으면서도 다른 건강인들과는 원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이상욱은 그의 미감아였던 고통스러운 과거에서부터 생겨난 나병 환자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있었다. 또한, 황희백을 통해 과도한 자기 연민의 부정적 발현의 모습 역시 보여주는 등 연민이라는 감정에 대한 다

양한 이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다.

누스바움은 문학 작품을 읽는 일이 공감적 상상력을 기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문학은 타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소설을 읽으며 연민의 감정에 대해 배우고, 인물에 대해 연민을 가지고 공감하면서 관계를 맺는 것은 그들과 나의 운명을 동일한 것으로 삼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감적 상상력은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며 이것이 부재할 시, 배제와 소외가 만연하여 혐오감과 수치심이 증폭될 수 있다.

소설을 읽으며 독자는 다양한 인물에 감정을 이입하기도 하고, 동일시하기도 한다. 독자는 조백현을 통해서 연민의 행복주의적 조건에 대해 고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기적인 목적과 노력으로 시작했지만 연민이라는 감정이 생겨나고 확대됨에 따라 사적 삶뿐만 아니라 공적 삶에서도 합리적 숙고와 바람직한 행동을 위한 훌륭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상욱을 통해서 연민과 혐오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투사적 혐오가 나타나는 원인과 과정들, 그러한 혐오가 나병 환자들에 대한 연민을 방해하는 심리적 기제로 작동한다. 그리고 섬을 탈출하고 후에 섬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조백현에게 편지를 쓰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까지 섬에 숨어들어가 천국으로 변한 섬 생활을 지켜보는 장면을 통해서 연민이라는 감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황희백 노인을 통해 자기 연민이 과잉되었을 때 과도한 나르시시즘적 행동으로 발현되어 윤리적 사고와 논리가 상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감정 이론들을 통해 소설을 읽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점에서 문학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설 향유의 차원을 확대하고 문학의 기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이청준, 『당신들의 천국』, 문학과 지성사, 2012.
- 마사 누스바움, 조형준 옮김, 『감정의 격동 2 연민』, 새물결, 2015.
- 김윤식,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 성민엽, 『겹의 삶, 겹의 문학, 이청준 깊이 읽기』, 문학과 지성사, 1999.
- 윤여탁 외, 『문학2』, 미래엔, 2011.
- 정과리, 『(해설) 용서, 그 타인됨의 세계』, 겨울 광장, 1987, p.434.
- 고현범, 「마사 누스바움의 연민론: 독서 토론에서 감정의 역할」, 『인간·환경·미래』,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5, pp.123-150.
- 나병철, 「당신들의 천국과 권력의 미시물리학」, 『현대문학의 연구』제9집, 한국문학연구학회, 1997, pp.213-248.
- 류동규, 「타자 이해를 위한 '공감의 플롯' 읽기」, 『국어교육연구』제71집, 국어교육학회, 2019, pp.237-272.
- 서영채, 「과잉윤리와 몰윤리 사이의 문학: 이청준의 '참기름 사건'과 『당신들의 천국』」, 『한국근대문학연구』제18집, 한국근대문학학회, 2017, pp.139-168.
- 송지연, 「육망의 윤리적 소통: 이청준의 소설과 소설론에 대한 인간학적 접근」,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4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pp.29-56.
- 오은엽, 「이청준 소설의 공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p.1-307.
- 이동재, 「『당신들의 천국』에 나타난 윤리성 연구 - 이상옥의 주체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제5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5, pp.189-213.
- 이미란, 「용서와 화해, 잊기의 윤리학: 이청준의 창작론 연구(2)」, 『현대소설연구』제54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pp.361-391.
- 이병국, 「『꽃길』에 복무하는 존재의 소외: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 『실천문학』제126집, 2017, 실천문학사, pp.210-217.
- 이병렬, 「소설의 허구화 과정에 대한 한 연구-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제1집, 한국현대소설학회, 1994, pp.157-181.
- 이 선, 「연민의 사회적 역할: 누스바움의 연민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제24집,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8, pp.25-44.
- , 「인공지능과 감정지능-누스바움의 감정론을 중심으로」, 『건지인문학』제19집,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pp.161-179.

홍웅기, 「소설적 자유와 욕망의 실천가능성-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제5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pp.439-457.

Abstract

The study of compassion revealed in Lee Cheong-jun's  
<Your Heaven>

- Based on Martha Nussbaum's theory of compassion -

Park, Jun-hyeong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new direction of understanding the novel through Martha Nussbaum's theory of compassion. Using Lee Cheong-jun's <Your Heaven> as the text, I analyzed and applied various layers of compassion.

Nussbaum tries to see emotion emotionally through emotion theory. This is in contrast to what philosophers in the past have argued for, through emotional feelings, guarantees many possible errors, but it is a reasonable value judgment of the suffering of others about compassion, and the social sympathy and social system of compassion. Insist that change is important. It is based on the fact that emotions have objects, objects of emotion are oriented objects of the emotion subject, emotions embody beliefs about objects, and awareness of emotions judges objects as valued.

Lee Cheong-jun's <Your Heaven> is a work that shows the reality under military dictatorship by the allegory technique, and it is a novel that accuses and criticizes the reality of Sorok-do, which was designed and produced as a report. In this novel, which shows various interests, centered on the army officer and head of Solok-do, Cho Baek-heon, medical director Lee Sang-wook, and leprosy head Hwang Hee-baek.

First, the analysis of the compassion and cognitive structure of the people in Solok-do, as shown by Jo Baek-Hun. Second, the analysis of how self-pity and self-hate affects the attitudes of the characters toward

their indigenous people through “Lee Sang-wook”. Third, it is meaningful to understand the theory of emotion of Martha Nussbaum through the analysis of self-pity shown by Hwang Hee-baek, and to see the possibility that these can suggest a new direction in the process of accepting literature.

Key Word : <Your Heaven>, Lee Chung-joon, Martha Nussbaum, Emotion Theory, Compassion, Accepting Novels, Literature

박준형

소속 :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전자우편 : parkjh954@naver.com

이 논문은 2020년 02월 04일 투고되어  
2020년 03월 0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03월 11일 게재 확정됨.